서울주보

제2436호
2023년 2월 26일(가해)

사순 제1주일

발 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 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 쇄 가톨릭출판사
전 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tube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이남규 루카(1931-1993), 50x100cm, 레드케임 스테인드글라스, 1988년, 가좌동성당(현재 탄현동성당 소장)

입 당 송 | 시편 91(90),15.16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제1독서 | 창세 2,7-9; 3,1-7

화 답 송 | 시편 51(50),3-4.5-6ㄱㄴ.12-13.14와 17(◎ 3ㄱ 참조)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제2독서 | 로마 5,12-19<또는 5,12.17-19>

복음환호송 | 마태 4,4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 음 | 마태 4,1-11

영성체송 | 마태 4,4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GENIE TV 231번 / Btv 297번 / U+tv 274번

하느님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 | 사회사목국 부국장

여러분은 무엇이 원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신자들은 오늘 제1독서의 내용이 원죄라고 생각합니다. 일견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죄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원죄의 전부라고 한다면 솔직히 하느님께 실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 하느님 아니신가요? 그런데 세상에 나무 열매가 하나만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소중한 것도 아닌데 고작 한 번 먹었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영원한 벌을 내리셨다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 열매는 상징입니다. 본질은 나무 열매에 있지 않고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모든 마음에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그럴 수 없던 나무 열매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면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고 두 사람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악마의 대화에서 우리는 원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세 번 유혹합니다. 한 번은 먹을 것으로, 다른 한 번은 목숨으로, 마지막으로는 권력으로 그분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 번의 유혹을 다 이겨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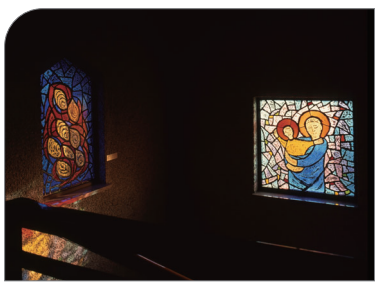
예수님이니까 배고프지 않고, 목숨이 소중하지 않고, 권력을 싫어하셔서(?)가 아닙니다. 온전한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이기에 배고픔도 느끼시고, 하나뿐인 목숨도 소중하고, 권력이 주는 달콤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유혹의 전제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데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기에 당신 자신을 굳이 증명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권능을 동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굳이 무언가를 해야 합니까?

그분들의 삶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위험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원죄의 본질은 어떠한 이유로든 하느님의 사랑과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은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작품 설명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마태 4,10)

스테인드글라스를 통과한 빛은 어두운 공간에서 더 밝게 드러납니다. 빛과 어둠은 늘 공존합니다. 유혹을 떨쳐내고 멈추어 서면 우리는 빛이 들려주는 새로운 이야기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그분과 마주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엄마의 아주 특별한 여행

이영준 로렌조
KBS 시사교양국 프로듀서,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회장

아버지를 주님 품에 먼저 보내시고 홀로 되신 지 올해로 8년 째. 다행히 엄마는 고향의 동네 성당에서 활동도 즐겁게 열심히 하시고 지인들과 친교를 이루시며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올해는 그런 엄마가 팔순을 맞으시는 뜻깊은 해입니다. 여느 생신과는 다른 이벤트를 기획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형제들이 지난 연말부터 온라인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형님, 그래도 팔순인데 좀 근사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호텔 하나 잡아서 지인들 친척들을 두루 모시고 제대로 된 식사도 대접하고 합시다!" "그래요, 둘째 형님 말씀이 좋은 거 같아요. 시간이 아직 좀 남아있으니 호텔은 제가 잡아 볼게요." "오빠, 요즘은 팔순을 너무 거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까운 친척 분들만 모시고 가볍게 식사나 하시죠." 동생들의 의견을 쭉 들으며 장남인 저는 한 술 더 뜹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창졸간에 그렇게 보내시고 마음이 많이 헛헛하실텐데 둘째 말대로 제대로 하자. 내가 방송국에 있으니 좀 유명한 가수도 한 분 초대해서 흥을 돋우어 볼까?"

그리하여 우리 형제들 나름의 생각들을 전달해 드리러 지난 설 때 고향집에 모였습니다. "여차저차 하여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무이도 괜찮지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도 섭외해 볼게요!" 당당하게 장남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머님의 흐뭇한 리액션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뜻밖의 반응과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마음이 참 고맙구나. 그렇게 해도 참 좋긴 하겠지만, 팔순을 목전에 둔 아버지가 8년 전 그렇게 떠나셨는데 내가 팔순잔치를 거하게 하려니 좀 맘이 무겁구나. 그런 건 다 순간뿐이고 지금 분위기에도 안 맞아 보이는구나." "차라리 내가 평생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들어줄 수 있겠니?" 저희 형제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해졌는데 어머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아직 교황님 계신 곳 바티칸을 못 가봤는데 거기 가서 교황님도 먼 발치나마 알현하고, 미사도 드리고 싶구나.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평화를 구하는 기도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나고 돌아가신 아시시에도 가보고 싶구나. 아직은 그 정도 다닐 힘은 있으니, 팔순 선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해 준다면 난 여한이 없겠구나." 저희들은 모두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숙연해졌고 다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곧 이탈리아 성지순례길에 오르십니다. 여동생이 옆에서 어머니의 귀와 눈, 손과 발이 되어 주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소풍을 앞둔 초등학생처럼 기대에 부풀어 체력 단련도 하시고, 여행지 공부도 하시고 신이 나셨습니다. 어머님이 생애 가장 특별한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시면, 팔순 생신날 옹기종기 모여 여행담 들을 걸 생각하니 저희는 저희대로 마음이 설레이곤 합니다.

"주님, 어머님의 아주 특별한 여행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컷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전례'

"전례 없이는 그리스도교 없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 2021년 2월 3일 수요 일반알현 말씀 중 -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시노달리타스 여정인 사순 시기의 수덕

담화문 전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 참조

마태오와 마르코와 루카의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변모에 관한 복음이 해마다 사순 제2주일에 선포됩니다. 사순 시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과 더불어 자기 수련으로서 수덕(ascesis)의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순 시기의 수덕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십자가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도록 은총으로 북돋워지는 하나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스승님을 깊이 알고, 사랑 안에서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성취된 하느님의 구원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범속과 허영을 멀리하고 그분께서 외떨어진 높은 곳으로 이끄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타볼 산에 올라갔듯이, 한 분이신 스승님을 모시는 제자로서 같은 길을 함께 나아가기에 우리의 사순 여정은 '시노달리타스'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길이시라는 사실과, 그렇기에 교회는 전례의 여정을 통해서도 시노드의 여정을 통해서도 구세주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더욱더 깊고 충만하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 정상에 섰을 때, 세 명의 제자는 초자연적인 빛으로 찬란한 영광 안에 계신 그분을 보는 은총을 얻습니다. 어떤 힘겨운 등산 중이라도 우리는 그 길만을 올곧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 펼쳐지는 광경이 우리를 놀랍게 하며 그 웅장함으로 보답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시노드 과정 또한 종종 힘들어 보이고 때로는 우리를 낙담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틀림없이 멋지고도 놀라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 결실이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의 사명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타볼 산에서의 제자들의 체험은 변모하신 예수님 곁에 율법과 예언자를 각각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마태 17,3 참조) 시노달리타스 여정 또한 교회의 전통에 뿌리를 두는 동시에 새로움에 열려 있습니다.

사순 시기의 수덕의 여정과 시노드의 여정은 모두 개인과 교회의 변모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고 그분과 함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두 가지의 '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제자들이 타볼 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관상할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신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마태 17,5)입니다. 성경 말씀에 더하여 주님께서는 형제자매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얼굴과 그들의 사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노달리타스 과정을 위한 상호 경청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기 위한 교회의 양식과 방법에 언제나 필수 요소입니다.

사순 시기를 위한 두 번째 제안은 일상의 수고들과 어려움, 반대로 점철된 현실을 직시하기 두려워 특별한 사건과 극적인 체험들로 이루어진 종교성으로 도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시노달리타스 여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강력한 친교 체험의 은총을 베푸실 때 우리가 정상에 도착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평지로 내려갑시다. 우리가 체험한 은총으로 우리가 공동체 일상생활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장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Francisco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에페 5,8)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 조심스럽게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 공동체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요청에 따라 시노드를 개최함으로써, 움츠러들었던 신앙생활의 '어두운 터널'에서 '친교, 참여, 사명(선교)'이라는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둠 속에 머물던 지난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성부·성자·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이며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사순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구원의 기쁨을 우리 삶 안에서 다시 체험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파스카 부활의 신비를 잘 맞이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 곧 온 존재를 통해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하느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묵상하고 그 사랑, 자비, 용서를 체험하고 만나면서 사랑이신 하느님께 다시금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지금의 나'를 차분하게 직시하고, '지금까지의 나'를 돌아보면서 하느님 아닌 다른 가치들을 하느님 자리에 두고 살아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받고 하느님을 향해 새롭게 정향(定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내다보는 은총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어주신 것처럼, 우리 삶 안에 있는 여러 형태의 부정적인 체험들이 그저 암울한 끝이 아님을 믿음 안에서 묵상하고 다시금 신앙 안에서 힘을 길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는 역설적으로 희망의 시간입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보이는 현실, 우리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저 '어둠'으로만 보이는 사건이나 상황에서도 절망과 좌절로 끝맺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자비의 하느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고통의 신비'입니다. 우리네 삶에서 느닷없이 찾아오는 원치 않는 여러 모습의 실패, 좌절, 이별, 병고, 단절, 죽음 등의 힘든 시간들이 그저 의미 없는 형벌이 아니라, 하느님만이 주시는 다른 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둠이 짙어가는 것은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부활로 귀결되었음을 믿기에 우리는 이 사순 시기가 희망의 시간임을 압니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려운 사람끼리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가족을 따뜻이 손잡아 주고, 혼자 있는 이웃을 찾아주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열린 눈과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맞잡을 때, 빛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 시기에는 특히 미사성제를 통해 믿음의 힘을 길어냅시다. 하느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場)이요 시간인 미사 전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저 이천여 년 전의 역사적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힘을 길어내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떨치고, 교회의 전통 안에 있는 다양한 신심 활동을 통해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시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번 사순 시기 동안 일상 속의 참회와 속죄로 그분 십자가에 동참합시다.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적극적인 미사 참례와 다양한 신심 활동으로 꺼져가는 신앙생활의 불씨를 새로이 지핍시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에페 5,8)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 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十정순택

환경칼럼

생태적 회심을 살아가는 기쁨

이명자 데레사 | 한국CLC 생명살리기팀 팀장

구약성경 창세기를 열면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기 좋다고 하시며 인간에게 맡기시는 장면이 장엄하면서도 친밀감 있게 펼쳐집니다.

한국씨엘씨(CLC) 공동체는 해마다 새해를 여는 연례 피정 안에서 하느님께 받은 이 세상이 얼마나 조화로운 사랑의 선물인지 새롭게 발견하고, 하느님의 피조물들과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 과정 안에서 고민 없이 소비하고 편리함을 추구했던 우리의 태도가 아름다운 세상을 이토록 파괴하였음을 성찰하게 되었기에, 팀의 활동 목적을 '생태적인 삶의 방식을 통하여 깨어진 세상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한다.'로 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자연 질서를 존중하는 삶이 우리 일상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도록 변화시킨 사례를 나눠봅니다.

첫째, 나날이 병들어가는 우리 밥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통 방식으로 장을 담고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을 공장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만드는 것은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대자연이 우리를 품어 회복시켜주는 것을 깨달으며 가공식품에 길든 CLC희망학교 청소년들에게 생태 체험의 장을 열어주고, 된장 가르기, 쑥개떡 만들기, 열무 씨뿌리기, 알밤 줍기를 하면서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시간은 즐겁고 가슴 벅찼습니다.

둘째, 나날이 심화하는 기후 재난과 바다에 쌓여가는 쓰레기 섬, 플라스틱을 먹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생물들! 이에 플라스틱 배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사무국 공간에 작은 리필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친환경 세제류와 비누, 샴푸바(고체 샴푸)를 만들고, 미세 플라스틱이 생기지 않는 삼베 실로 수세미를 뜨면서 겨자씨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셋째, 멀쩡한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나바다 운동과 바자를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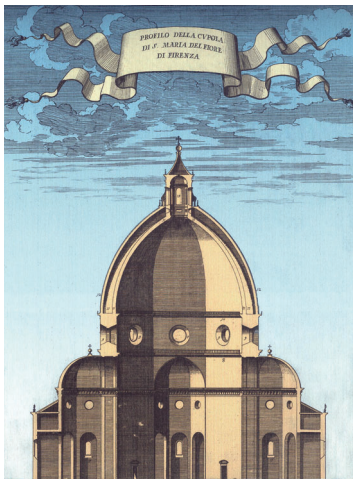
쓰지 않는 물품 사진을 찍어 CLC의 온라인 마켓방에 올리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물건을 사기 전에도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올리면 놀랍게도 '여기 있어요.' 하며 기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어 두 번의 바자를 열었고, 그 기회로 가전과 생활용품, 의류, 서적과 성물 등 수많은 물건이 새 주인을 만나 다시 쓰이게 된데다, 수익금은 희망학교에 기부하니 모두가 잔치의 주인으로서 즐겁고 뿌듯하였습니다.

리필 코너와 아나바다는 본당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꼭 용기 내어 보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찬미받으소서〉에서 말씀하시듯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행동으로 연대할 수 있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반하시며 꿈과 지혜를 담아주신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한국씨엘씨(CLC, Christian Life Community)는 예수회 창립자 성 이냐시오의 영성을 따르는 국제 가톨릭 평신도 공동체입니다.

땅 위에 기초를 세우다 - 건축의 설계 단계

황원옥 마리아에스텔 수녀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가톨릭건축사사무소 대표



꽃의 성모 마리아
– 피렌체 대성당

F. 브루넬레스키 밑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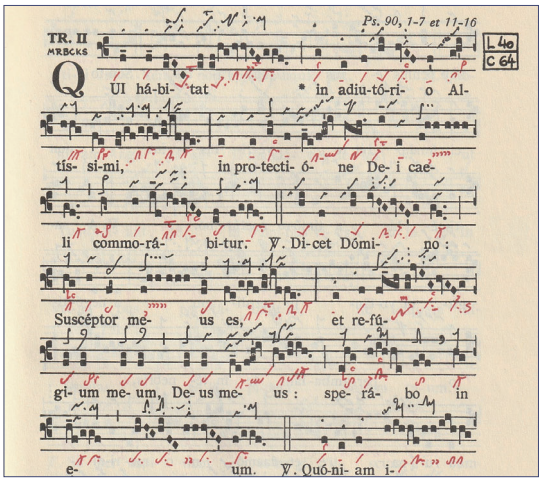
모든 일에는 기본이 중요하고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다소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또 조금이라도 잘 실행하고자 하는 원의가 있다면 객관적인 사고와 논리의 적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획 단계에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관련 법규를 검토한 후 사용될 경비 산출까지 큰 그림을 그렸다면, 설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용성과 시공성, 유지관리의 측면도 염두에 두면서 공사중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간혹 시작은 창대했으나 건축 관계자의 개성에 따라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론과 실기의 토대 위에 적절하고 상세한 검증을 거친 도면이야말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바이지만, 단순 경험치에 의한 건축이 가끔은 멋진 결과를 내어 줄 수도 있다는 요행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건축은 단계별로 필요한 검증을 거듭하면서, 견고성과 실용성 그리고 전례 예술성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을 충족하고 조화를 이룰 때 도면을 실제 건축물로 잘 구현하게 됩니다. 건축은 무엇보다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을 위한 견고함이 중요하며, 실 용도에 알맞은 공간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기능성과 편안함을 주어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살고 지향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전례적 이미지와 함께 예술성까지 겸비해 준다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처럼 그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이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건축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건축의 시작에서부터 의견이 불일치하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서로 불목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다시금 되짚어 보면서 잠시 쉬어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숙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자의 생각과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양보하면서 공동선을 위한 목적에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걸음 한걸음이 더해져 목표에 다다르듯이, 지난한 설계 과정을 충분한 소통과 인내로 일치하여 걸어갈 때 설계는 숙성되고 정화되어 공동의 목표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되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으로 성급하게 공사를 시작한다면,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예상을 초과하는 경비의 부담을 맞닥뜨리기도 하며, 정작 맞추고자 했던 준공시점을 오히려 맞출 수 없게 되는 뼈아픈 결론을 얻기도 합니다.

구름 위가 아닌 단단한 땅 위에 기초를 세우는 마음가짐으로,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상기하면서 매일의 기도와 삶에 동기부여를 한다면, 그 어떤 건축이든 시작과 마침 점에 평화와 일치가 가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확신해 봅니다.

음악칼럼

사순 시기에 후렴 없이 '이어서' 부르는 노래 '연송' (延頌, 連誦 / Tractus)



〈로마 미사곡집〉(Graduale Triplex)
Tr.Qui habitat 중에서 시편 90(91),1–2절

최호영 요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음악과 교수 · 주교좌 명동대성당 성음악감독

사순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집중적으로 묵상합니다. 따라서 미사 전례에서 대영광송(Gloria)를 낭송하거나 노래하지 않으며, 복음 환호송에서도 "알렐루야"라는 후렴이 생략되는 '복음 전 노래'를 부릅니다.

복음 환호송에 대해서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제62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음 바로 앞에 오는 독서가 끝나면 전례 시기에 따라 예식 규정대로 복음 환호송, 곧 알렐루야나 복음 전 노래를 부른다. 이러한 환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식 또는 전례 행위가 된다. 이렇게 노래함으로써 신자들은 복음에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며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

이러한 복음 환호송은 전례 시기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순 시기 이외의 시기에 사용하는 '알렐루야' 그리고 사순 시기에 사용하는 '복음 전 노래'입니다.

'복음 전 노래'의 라틴어 명칭은 트락투스(Tractus)입니다. '이어서, 끊이지 않고'라는 뜻의 라틴어 단어(Tractim)에서 유래하는 이 노래는 '알렐루야라는 후렴 없이 이어서 부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 이외의 시기에는 '알렐루야–시편–알렐루야' 형식으로 부르던 복음 환호송을 사순 시기에는 "알렐루야"라는 후렴을 생략하고 오직 '시편'만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원래 '연송'(延頌, 連誦 / Tractus)이라고 했습니다.

'연송'은 이미 1-2세기 초대 그리스도교 전례에서 시편을 낭송하던 형식으로서, 독서 후에 시편을 한 구절 한 구절 '이어서' 혹은 신자들의 참여 없이 '직접적'(In directum)으로 노래한 것에 기원합니다.

그레고리오 성가의 8가지 선법 중에서 연송은 오직 제2선법과 제8선법으로만 노래하는데, 이는 연송이 초대 그리스도교 전례 음악의 초기 작품임을 드러냅니다.

사순 제1주일 미사 전례에서 노래하는 'Qui habitat'이 연송 중에서 가장 긴 작품으로, 시편 90(91)편 1-7절과 11-16절을 노래합니다.

"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속에 사는 이,
(Qui habitat in adiutorio Altissimi)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는 이는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이신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신뢰하네."
그분께서 새잡이의 그물에서,
위험한 흑사병에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당신 깃으로 너를 덮으시어
네가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너는 사자와 독사 위를 거닐고
힘센 사자와 용을 짓밟으리라….

"

그레고리오 성가

고대 로마 성가

소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튀르키예 지진 희생자 애도 메시지 발표

지난 6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인접국 시리아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희생된 모든 영혼이 주님의 위로와 자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 고통 중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한국에서 고국에 있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양국의 국민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궂은 날씨와 계속되는 여진에도 참혹한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힘쓰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성모님의 전구를 청합니다. 우리 서울대교구 신자들과 함께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 모두가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위원 임명

위원장: 구요비 주교 / **부위원장** 박선용 신부
위원 유경촌 주교, 손희송 주교, 이경상 신부(사법대리 겸 개포동 본당 주임), 원종현 신부(순교자현양위원회 부위원장), 정영진 신부(교구 사무처장), 김한석 신부(관리국장), 박준양 신부(한국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담당), 조성풍 신부(사목국장), 조한건 신부(한국교회사연구소장), 최광희 신부(문화홍보국장), 최원철 신부(살레시오회 관구장), 나현오 수녀(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총원장), 안재홍 회장(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봉욱 변호사

시복시성위원회 산하위원회

1) 역사위원회
위원장: 조한건 신부
위원: 임민균 신부, 박광용 교수, 장정란 교수
2) 신학위원회
위원장: 박준양 신부
3) 현양위원회
위원장: 원종현 신부
위원: 염수의 신부, 이경상 신부, 윤성호 신부, 조성풍 신부, 안재홍 회장, 이창훈 소장
4) 홍보위원회
위원장: 최광희 신부
위원: 조정래 신부, 김대영 신부

옹기장학회 기금 출연 안내

옹기장학회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소망과 꿈이 담겨있는 장학회입니다 아시아, 특히 북방선교에 투신할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장학회를 함께 키우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신언 몬시뇰 / **이사장:** 정순택 대주교
옹기장학회 기금 출연하는 방법: 일시불 또는 정기적으로 정한 금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에게는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 **문의:** 02)727-2525 사무국
계좌: 국민은행(375301-04-076713), 우리은행(454-037208-13-001), 신한은행(140-008-715396), 농협(386-01-012782) /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4년 3월 5일 김인상 야고보 신부(61세)
- 1975년 3월 5일 황정수 요셉 신부(85세)
- 2010년 3월 1일 김옥균 바오로 주교(85세)

교구청 알림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안내

때, 곳: 매주(금) 12시15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부서원 모집

주님의 도구로써 청년부와 함께할 부서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서: 주보편집부, 밴드 유빌라떼, 홍보부, 번역부
문의(지원): 02)762-5071, 2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박은희 개인전: 1전시실
안봉선 개인전: 2전시실
임은재 백유선 2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2월22일(수)~3월2일(목)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58차 미사 2월2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장련 본당, 매화동 본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023년 월요 성경통독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 **강의:** 조창수 신부
때, 곳: 1월2일~12월25일 매주(월) 13시~16시(90분 강의+미사) 온라인 동시 강의,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회비: 연회비 12만원 / **문의:** 010-7586-5425(문자)

충만한 삶을 향한 '사랑의 기쁨' 수업

대상: 생명윤리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때: 3월7일~4월25일 매주(화) 19시30분~21시(8주)
곳: 서울대교구청 501호 / 회비 없음
목표: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사랑의 기쁨」을 통해 신자들이 일상의 삶 안에서 겪게 되는 사랑, 혼인, 가정, 고통, 죽음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숙고하며, 보다 충만한 삶을 위한 복음적 관점을 정립함
신청마감: 3월3일(금) 오후 5시까지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문의(신청): 02)727-2351, 3 생명위원회 사무국

가톨릭학생회(KYCS-Cell) 회원 모집

가톨릭학생회는 로마교황청 산하 국제가톨릭학생회(IYCS-International Young Catholic Students)에 가입되어, 활동과 나눔을 통해 또래들과 체험을 공유하고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잘 어우러지며 건강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가톨릭학생회로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대상: 가톨릭 신자 청소년(14세~18세)
곳: 가톨릭 청소년회관(혜화동)
활동: 정기적인 학생모임 및 체험활동
문의: 02)742-4151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kycs.or.kr/cell)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3년 전반기 강좌 / 문의: 02)727-2379

접수기간: 2월1일(수)~28일(화)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링크: http://samok.or.kr/bibleseedbed 인터넷창에서 성서못자리를 검색하세요
1) 명동 오전 정기강좌(정기강좌 및 나눔터학교)
때, 곳: 3월6일~6월19일 매주(월), 명동 교구청 내 강의실(16주 강의)
강의시간: 10시30분~12시30분
개강미사: 3월6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회비(교재 지급): 정기강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강사신부 및 강의실 홈페이지 참조
2) 청년(사도행전), 직장인(정기강좌 3권) 성서못자리
때: 3월8일~6월14일 매주(수) 19시30분~21시(15주 강의)
수강료(교재지급): 청년 5만원, 직장인 8만원
3) 미주 온라인(zoom) 성서못자리 정기강좌(3권 - 동부 화요반 · 서부 목요반 / 1권-동부 화요반)
수강기간: 3월7일~6월15일(매주 1회 60분 강의 / 한 학기 15회 수업) / **회비:** 8만원(수수료 포함)
4) 온라인 성서못자리('에드위드' 플랫폼 활용)
수강기간: 3월6일~6월30일 / **회비:** 10만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없음) / **문의:** 02)727-2407, 2409
때: 3월2일(목) 오후 2시~3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김윤상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가톨릭 영유아(만 5세 미만) 부모교육

주제: 일상 속에서의 신앙교육
강사: 박종수 신부(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지도신부)
때, 곳: 3월8일(수) 오전 10시~12시30분, 영성센터 202호(구 계성여고) & 온라인 비대면 교육(ZOOM)-양방향 동시 진행 / 2월27일(월) 10시~3월6일(월) 16시까지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문의: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청년 Hello 기도 2023'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청년 Hello 기도 2023	함께 기도하며 기도를 배우는 시간 3월7일(화) 19시30분~2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청년 누구나 / **문의:** 02)727-2031 홍 죠반나 수녀

향심기도 월피정 및 소개강의 / 문의: 010-4565-8898

지도: 이승구 신부 / **회비:** 1만원
1) 향심기도 월피정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직장인	3월5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3월6일(월) 13시30분~16시30분

2) 향심기도 소개강의
대상: 누구나 / **곳:** 영성센터 A313호(구 계성여고)
때: 3월7일부터 매주(화) 14시~15시30분(4주간)

제42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 온라인 교육

대상: 창조질서보전을 위해 공부하고 활동할 신자, 수도자, 성직자 /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때: 3월14일~5월9일 매주(화) 19시30분~21시(총 9회)
방법: 온라인(Zoom으로 진행), 강의, 나눔, 과제(녹화영상 강의 시청 등) / 3월2일(목)까지 접수 마감(선착순 80명)
신청 방법: 구글폼 신청서 링크 주소(https://bit.ly/3Ha8yA6)로 접속하여 제출 필수 / **회비:** 1인당 5만 원

3월14일	1강 오리엔테이션, 「찬미받으소서」 서문	교구 환경사목위원회
3월21일	2강 LS 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의찬 교수
3월28일	3강 'LS 3장 인간이 초래한 생태위기의 근원들'과 4장 '통합생태론'	조현철 신부
4월4일	4강 LS 2장 '창조의 복음'	이다한 신부
4월11일	5강 LS 5장 '접근법과 행동 방식'	박동호 신부
4월18일	6강 '공동의 집을 돌보는 행동'	하유경 디딤벗
4월25일	7강 LS 6장 '생태 교육과 영성'	문점숙 수녀
5월2일	8강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이재돈 신부
5월9일	9강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따른 7가지 실행목표 및 연대 활동 소개, 수료미사	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인준단체 알림

모임

비대면 생활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돌깨생활피정' / 최영민 신부(예수회)

18양천지구 성령 피정
강의·미사: 박효철 신부 / 문의: 010-9074-6527
때, 곳: 3월6일(월) 13시~16시30분, 양천성당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도쿄, 북해도, 가고시마, 나가사키
회비: 75만원 / 문의: 010-3645-9028 송진욱 신부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피는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때, 곳: 3월4일(토) 16시30분~18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2월24일(금)~27일(월)·3월10일(금)~13일(월)·3월24일(금)~27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자연순례: 3월9일~11일·3월13일~15일·3월18일~20일·3월24일~26일·3월28일~30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자연 피정·제주 성 이시돌 피정센터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자연 피정·제주 면형의 집 피정센터

자연순례	3월18일~20일, 4월3일~5일
성지순례	4월21일~24일, 4월29일~5월2일, 5월6일~9일, 5월18일~21일, 5월27일~30일

예수수도회 3월 피정
곳: 메리워드 교육관(서울 오류동)

청년주말 피정	3월18일(토)~19일(일)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2314-1645 카카오톡 채널: 빛더하기_예수수도회
3545 피정	3월17일(금)~19일(일) 대상: 35세~45세 미혼 여성	
2박3일 침묵 피정	3월24일(금)~26일(일) / 010-9608-0208	

교육

'예닮영성' 기초 과정
Ⅰ 나의 하느님 / 주1회·12주·1시간30분 교육
문의(접수): 02)472-3217(www.물이솟는샘.org / www.wellingspring.org) 가톨릭영성아카데미 물이솟는샘

3월15일(수) 19시	가톨릭회관 205호	주수욱 신부
3월20일(월) 10시30분	교구청 501호	홍성만 신부

다네이 글방(예수고난회) / 문의: 010-9503-1127
하느님을 향한 책읽기와 글쓰기 / 대면·비대면
때, 곳: 매월 둘째·넷째주 (화·수), 수도원(돈암동)

'다함께 성가를' 발성교실 / 문의: 010-9842-8818
가톨릭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띠나음악원(주최, 신촌)

새천년복음화학교 수료특강 및 미사
내용: 특강 및 미사 / 문의: 02)753-8765
주제: 올바른 믿음을 고백합니다
때, 곳: 3월5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CaFF영화제작워크숍 11기 수강생 모집
때: 3월8일~6월17일 매주(수) 19시~21시30분(15주)
접수: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곳: 초보자 **수요일반** 14시·**토요일 오후반** 14시,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오르프'와 함께하는 쉼, 움직임 / 문의: 02)924-3048
대상: 청년, 직장인 / 카카오톡 ID: k_orff
때: 3월7일~28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곳: 성골롬반외방선교회(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헬라어)
때, 곳: 4월부터 1년간(주1회 2시간), Zoom
회비: 3개월 30만원 / 010-4598-6912 프란치스코회

구약	(목) 10시·19시30분	신약	(수) 19시30분

미사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 문의: 02)793-2070
때, 곳: 3월4일(토) 10시,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성서가족 열린미사(목3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홍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월 다섯째주(일) 2월26일 15시
곳: 목3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옹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2월27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오형훈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김평만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첫토요일 신심미사·청년 쎌모임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1) 첫토요일 신심미사
때: 3월4일(토) 오전 9시30분~12시
곳: 가톨릭회관 3층 / 내용: 쎌기도, 미사
2) 평화의 모후 청년 쎌모임
때: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 대상: 미혼

은총의 겟세마니 성시간·미사 초대
대상: '예수성심의 열정적 사랑', '성령을 통해 기도 응답을 바라는 자' / 문의: 02)312-7211 선교 사무실
때, 곳: 3월2일(목) 19시~21시, 프란치스코 회관(정동) / 고백과 상담: 오후 6시부터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c.or.kr)

가톨릭여성연합회 2월 정기월례회
미사·특강: 은성제 신부(가톨릭이동쉼터 소장)
때, 곳: 2월28일(화) 10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78-75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자아의 통합과 영성	대면강의 및 그룹훈련: 3월9일~6월15일 매주(목) **치료적 강의** 10시~11시30분·**그룹훈련** 11시30분~13시 / 회비: 학기별 45만원
	온라인 동영상 녹화강의 / 회비: 학기별 30만원
명상으로 하는 마음치유하기(몸과 마음을 하나로 하는 통 명상)	강사: 박연규 교수 때: 3월15일~5월3일 매주(수) 10시~13시(이론과 실습 병행)

직원모집

대치3(성모탄신)성당 미화원 모집 / 문의: 02)568-3656
분야: 계약직 / 대상: 세례받은 신자
업무: 성당청소 외(주 25시간, 4월 근무 예정)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방문 및 이메일(kc7hoon@naver.com) 접수

성 앤베르 센터(진관동)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로 주말 근무 가능한 분(주 40시간 근무) / 업무: 회계 및 피정 준비 등
분야: 교구사무원 1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문의: 02)2280-1784
3월5일(일)까지 이메일(imbert@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3월5일(일) 10시	서울 본부(동소문로)	02)924-3048(korvocation@coulmban.or.kr)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umjesupassio@gmail.com)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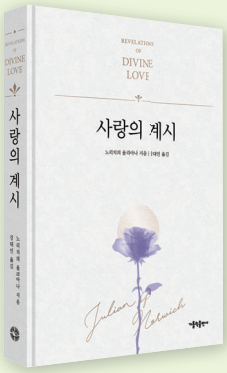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

2023년 2월 추천 도서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 고난의 때에 당신 자신을 알리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에스 4,17(23)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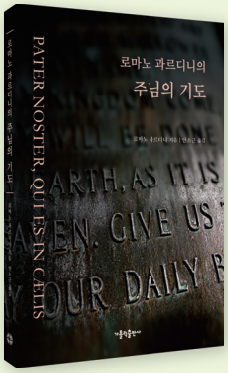
사랑의 계시

노리치의 율리아나 지음 | 24,000원

16번의 환시로 본 사랑의 계시
베네딕토 16세 교황 추천 도서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며 구원에 다가간 한 신비가의 기록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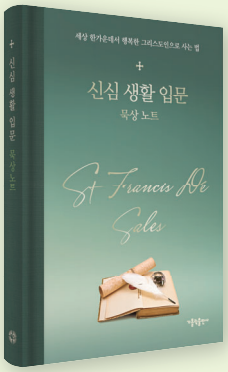
로마노 과르디니의 주님의 기도

로마노 과르디니 지음 | 16,000원

'주님의 기도'에 담긴
풍부한 신적 보화를 발견하다

20세기 대표 신학자 로마노 과르디니의 '주님의 기도' 주해

신간



신심 생활 입문 묵상 노트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15,000원

하느님께 나아가는
100일간의 영적 성장

평신도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지침서 《신심 생활 입문》을 묵상하고 필사하며 마음에 담는 시간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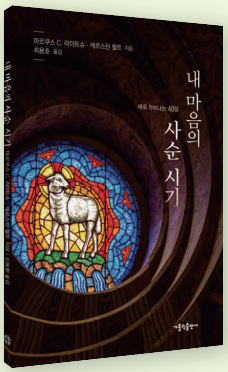
시편과 아가 쓰기 노트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엮음 | 14,000원

주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주님께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필사해 보세요

사순 시기 추천 도서



내 마음의 사순 시기

마르쿠스 C. 라이트슈 외 지음 | 8,000원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40일

내 안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주님과 가까워지세요

사순 시기 추천 도서

예수의 생애

엔도 슈사쿠 지음 | 16,000원

그리스도의 탄생

엔도 슈사쿠 지음 | 17,000원

신학적 지식과 상상력을 더해 소설가의 시선으로 그리스도를 재발견하다

2022년도 본당 재정 결산

수입지부 항목	2022년 예산액	2022년 결산액
봉 헌 금 (교무금,주일・감사・기타헌금)	2,600,000,000	3,465,718,969
후 원 금	157,960,000	158,880,000
특별헌금	80,000,000	120,136,000
기 부 금	160,000,000	308,508,630
부속기관수입 (혼배,장례,사용,이자,기타)	965,000,000	1,666,354,750
합 계	**3,962,960,000**	**5,719,598,349**

지출지부 항목	2022년 예산액	2022년 결산액
선 교 비 (제전비,전교비,단체보조비, 주일학교운영비,교구납부금, 특별헌금,통일기금,기타부담금)	2,157,876,000	2,760,448,139
성무활동비 (사제관・수녀원)	311,650,000	295,804,990
교 육 비 (신자・직원)		506,000
성소개발비	30,000,000	35,535,000
자선찬조비	150,000,000	141,973,000
교구 및 기타행사비		330,927,020
인 건 비 (급여,수당,퇴직금,복리후생)	663,500,000	652,716,172
본당 운영비 (유지,보수,용역 등)	413,500,000	502,036,620
세금과공과	41,000,000	44,401,877
조경기타시설비	154,000,000	252,196,200
기타잡비	10,000,000	3,847,060
운영수지차액	37,434,000	699,206,271
합 계	**3,968,960,000**	**5,719,598,349**

2023년도 본당 재정 예산

수입지부 항목	2023년 예산액	2023년 결산액
봉 헌 금 (교무금,주일・감사・기타헌금)	3,700,000,000	
후 원 금	152,230,000	
특별헌금	150,000,000	
기 부 금	410,000,000	
부속기관수입 (혼배,장례,사용,이자,기타)	1,690,000,000	
합 계	**6,102,230,000**	

지출지부 항목	2023년 예산액	2023년 결산액
선 교 비 (제전비,전교비,단체보조비, 주일학교운영비,교구납부금, 특별헌금,통일기금,기타부담금)	3,485,300,000	
성무활동비 (사제관・수녀원)	304,130,000	
교 육 비 (신자・직원)	1,500,000	
성소개발비	35,000,000	
자선찬조비	150,000,000	
교구 및 기타행사비	310,000,000	
인 건 비 (급여,수당,퇴직금,복리후생)	720,000,000	
본당 운영비 (유지,보수,용역 등)	599,500,000	
세금과공과	45,000,000	
조경기타시설비	340,000,000	
기타잡비	5,000,000	
운영수지차액	106,800,000	
합 계	**6,102,230,000**	

◉ 명동대성당 장년・청장년 레지오 마리애 단원 모집

·공통사항 : 세례 받은 남녀 교우 (교적 본당 무관)
·입단문의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6404-2240
- **천주의 성모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9279-2381
- **평화의 모후 꾸리아** (☞ 35~45세 청장년)
단장 ☎ 010-5054-6495 (문자 요망)

◉ '봉사뱅크' 상설 고해소 봉사자 모집

·대상 : 가톨릭 교우 (예비신자도 환영합니다 !)
·활동 : 상설 고해소 안내 봉사 (평일 & 주일 오후 시간대)
·봉사시간 확인 : 카카오톡 친구 검색 ☞ 봉사뱅크
·신청/문의 : 봉사뱅크 고해소 봉사 담당 ☎ 010-3668-5039
(※문자로 문의 요망 !)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1986년 창단된 한국 최초의 소년합창단 '명동대성당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 8세~12세 가톨릭신자 남아
·문의 : 자모회장 ☎ 010-8802-9003

◉ 옹기장학회 월례미사

·일시/장소 : 2월 27일(월) 오전 11시 / 파밀리아 채플
·주례 : 오형훈 신부님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 김평만 신부님
·문의 : 옹기장학회 사무국 ☎ 727-2525

◉ 아미쿠스 주일학교 신입교사 모집

아미쿠스 주일학교는 미사를 참례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일학교입니다.
·대상 : 세례성사를 받은 만 20세~만 40세 가톨릭 신자
·주요활동 : 주일 오전 10시 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 하는 미사, 미사 후 교리 등
·모집기한 : 2월 26일(주일)까지
·문의 : mdsd.amicus@gmail.com (※메일로 연락 요망 !)

◉ 마리아와 마르타 신입회원 모집

·활동 : 상・하반기 견진교리・성사 (안내, 접수, 나눔)
본당과 교우의 유대를 위한 제반 사업
·모임 : 매월 넷째 주일 오후 2시 ~ 4시
·대상 : 견진성사를 받은 30~40대 천주교 신자
·제출 : [①~③]을 kwonilhwan@naver.com으로 제출
① 입단신청서
(☞ 본당 홈페이지 단체모집 게시글에 첨부)
② 견진성사 증명서, ③ 교적증명서
·기간 : 2월 28일(화)까지
·문의 : 회장 ☎ 010-7622-0418
※추후 지원자에게 개별 공지드립니다.

◉ 본당 사무실 업무시간

요 일	근무시간	비 고
화~금	09:00~19:00	평일(화~금) 점심시간 [12:00-13:00] 사무실 폐문
토요일		
일요일	07:00~21:00	

774-1784(대)
753-1784(FAX)
본당 연령회
010-6375-1784

천주교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신부
수석부주임 전두병(요 아 킴)신부
부 주 임 진슬기(토마스아퀴나스)신부
부 주 임 조인기(암브로시오)신부
보 좌 이철규(아우구스티노)신부
보 좌 김영우(스 테 파 노)신부
보 좌 리백진(파 비 아 노)신부

미사 성가	입당 : 118	봉헌 : 220, 342, 513	성체 : 198, 171, 152	파견 : 122

◉ 사순 시기(2월 22일~4월 4일) 판공성사

※재의 수요일부터 보신 고해성사는 부활 판공성사로 간주됩니다. **판공성사표는 2월 26일(주일)부터 본당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재의 수요일부터 4월 4일까지 판공성사를 보신 분들은 교적에 성사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사표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성사표 없이 성사 보신 명동 교적 신자분들은 내방 또는 유선으로 사무실에 꼭 알려 주셔야 합니다.

(☞ 고해성사 요일과 시간은 '주보 하단 표' 참고)

◉ 고해성사 휴무

부활 판공성사 종료 후 **4월 5일(수)부터 4월 16일(주일)까지**는 상설 고해성사가 없습니다.

◉ 성소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매월 마지막 주일 오전 11시 미사는 본당 성소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지향으로도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성소후원회는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서 수학하는 신학생들과 성소자들을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사제·수도자 양성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 2023년도 명동대성당 사순 특강

·시간/장소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대성전

일 자	주 제 & 강 사
2월27일 (월)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루카 15,6)** **가정과 이웃의 생명 지킴이 교육** 차바우나 (바오로) 신부님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무국장·자살예방센터장 –

◉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에는 정순택 베드로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가 있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에 피정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시어 한 달을 힘차게 살아갈 영적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 3월 2일(목) 오후 8시 / 대성전

◉ 십자가의 길 : 3월 3일(금) 오후 6시 미사 후

◉ 3월 예비신자 교리반

3월 교리반 입교 시 세례성사는 9월에 거행되며, **3월 5일(주일) 오후 2시 교구청 본관 501호**에서 있을 **예비신자 환영식**에 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수요반	오후 7:30	교구청 본관 401호	장원혁 (세례자요한) 신부
토요반	오후 4:00		장 마리로즈 수녀

·6개월 과정으로 매주 2시간 수업, 미사 참례 필수
·전화·사전 신청 불가 & 2개 반 중 택일하여 신청
·준비물 : 등록비 2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첫 수업일 : 수요반(3월 8일), 토요반(3월 11일)

◉ 늘푸른청년 주일학교 봄학기 개강

·주제 : 언박싱_믿음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대상 : 35세~45세 청년
·일시 : 3월 18일~6월 10일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장소 : 교구청본관 501호
·접수 : 3월 4일(토) & 3월 11일(토) 오후 5시 30분
교구청본관 501호 현장 접수
접수비 3만원 (※현금 접수만 가능)
·문의 : 카카오채널 '늘푸른청년주일학교'

◉ 명동대성당 사무원 모집

·인원 : 계약직 사무원 1명
·대상 :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된 교우로서
회계 업무 및 PC 가능한 분
·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합격자 개별통보)
※제출서류 및 기한 안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2/13-2/19).....17,631,000
- 연중 제 7 주일 헌금.....31,327,000
- 감사헌금 (2/13-2/19).....570,000

강 아우구스티노 / 김 아녜스 / 박 아델라
서 미카엘라 / 오 미카엘 / 임 사무엘
정 프란치스코 / 박서완 / 홍서영

미사(Mass)

주일미사 (일요일)	대성당	오전 7시, 오전 9시(영어미사), 오전 10시(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오전 11시, 낮 12시(교중미사), 오후 4시, 오후 5시, 오후 6시, 오후 7시(청년미사), 오후 9시		
주일미사 (토요일)	대성당	오후 6시, 오후 7시(늘푸른청년미사)		
평일미사	대성당	월	오전 7시, 오후 6시	
		화-금	오전 7시, 오후 6시, 오후 7시	
		토	오전 7시	
성지미사	대성당	월-토	오전 10시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매월 첫째 주일 오후 1시 30분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고해성사 (Confession)

한국어	토-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화-금	오전 11시 - 오후 8시		
	월	오후 1시 - 5시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영 어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금	오후 4시 - 6시	토	오후 3시 - 5시